

高麗 太祖 王建을 보는 또 다른 시각

- 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

정 성 권*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발굴조사나 기존의 기록 등을 통해 태조 왕건집권기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고고미술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문헌사에서 파악하였던 고려건국기의 역사적 상황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근래 들어 발굴조사의 증가에 따라 태조 왕건대 조성된 것이 확실한 유적 여러 곳이 학계에 소개되었다. 기존의 발굴성과는 조사된 단일유적의 고고학적 결과를 발굴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고고학적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석불이나 탑비 등 미술사 분야의 연구 성과도 근래 들어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발굴 성과와 연구는 단일한 유적과 유물의 연구 성과만을 소개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에서는 태조 왕건집권기 조성된 안양사지, 교산동 건물지, 봉업사지, 소백산사 등의 유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이후 후백제와 대결을 벌이기 위한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발굴성과 이외에 석조미술자료도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후 태조의 명으로 조성된 개태사 석조삼존불상과 태조 왕건 시기 건립되거나 비문이 쓰여진 탑비이다. 태조 왕건은 개태사 석조삼존불상과 탑비의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효과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탑비의 경우 태조 왕건의 조성 의도와 상관없이 후대에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현휘와 절중, 형미의 탑비를 들 수 있다.

[주제어] 태조 왕건, 안양사지, 교산동 건물지, 봉업사지, 소백산사, 개태사 석조삼존불상, 탑비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새로운 통일왕조의 건국과 통치
- 석조미술을 통해 본 시각 |
| II. 통일을 향한 노정, 후삼국기
- 발굴유적을 통해 본 시각 | IV. 맺음말 |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강사 / zorba0829@hanmail.net

I. 머리말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시기는 918년 6월 15일이다.¹⁾ 이후 약 25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신라의 귀부를 받았으며 후백제를 평정하여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를 개창하였다.

태조 왕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태조 개인이 뛰어난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과 이 시기가 새로운 국가의 성립기라는 점 등으로 인해 다른 시대나 인물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 미술사분야의 경우 태조 왕건집권기에 대한 연구 성과는 주로 석조미술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²⁾ 특히 조성시기가 명확한 개태사 석조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성과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³⁾ 이밖에 태조 왕건집권기가 속한 나말여초기 승탑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된 바 있다.⁴⁾ 고고학 분야에서도 태조 왕건대에 조성된 유적이 발굴 조사되어 보고된 바 있다.⁵⁾

본 논문은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미술사 및 고고학 분야의 문화재를 문헌사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료의 한계로 밝힐 수 없었던 고려 건국기 태조 왕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태조 왕건의 통치기간은 크게 후삼국 상쟁기와 후삼국 통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볼 후삼국 상쟁기의 유적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보고서가 간행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상이 된 유적은 안양사지, 교산동 건물지, 봉업사지, 소백산사지 등이다. 후삼국 통일이후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된 유적과 유물은 개태사지,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과 태조 왕건집권기 조성되었거나 비문이 완성된 11개의 탑비이다. 본문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고찰되었던 태조 왕건대의 유적과 유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고려사』 권1 세가 태조원년.

2)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은 다음을 들 수 있다(洪大韓, 「高麗 石塔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丁晟權, 「高麗 建國期 石造美術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陳政煥, 「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 毘盧舍那丈六三尊佛像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29, 국립중앙박물관, 1982; 金春實, 「忠南 蓮山 開泰寺 石造三尊佛考 - 本尊像과 右脇侍 菩薩像이 後代의 模作일 가능성에 대하여 -」, 『百濟研究』 21,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1990; 崔聖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 - 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美術史論壇』 16·17호, 한국미술연구소, 2003; 정성권, 「論山 開泰寺 石造供養像 研究」, 『佛教美術』 23, 東國大學校 博物館, 2012.

4) 蘇在龜, 「新羅下代 高麗時代 僧塔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員 박사학위논문, 2001;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5) 한울문화재단연구원, 『安養寺址』, 2013;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04; 경기도 박물관, 『奉業寺』, 2002;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II. 통일을 향한 노정, 후삼국기 - 발굴유적을 통해 본 시각

1. 신수도 건설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6월 철원에서 고려를 건국하였다. 이후 919년 정월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 919년 3월에는 法王寺와 王輪寺 등 10개의 사찰을 도성 안에 창건하고 개경과 서경의 塔廟와 肖像 등을 아울러 수리하게 하였다.⁶⁾ 태조는 새로운 수도에 궁궐과 관청을 짓는 동시에 10寺를 창건하였다. 수많은 사찰의 동시 창건은 많은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후삼국 정립의 긴박한 정세와 건국 초창기임을 생각하면 무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사의 창건은 정치적 통일과 더불어 불교를 통해 사상의 통일을 이루어 민심을 모으기 위한 태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태조가 10개의 사찰을 동시에 창건한 다른 이유는 철원경과 비교되는 개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개경에 머문 시기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이듬해 정월 수도를 철원경에서 개경으로 옮겼다.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한 이유는 역모가 끊이지 않는 건국초기에 자신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개경으로 수도를 옮겨 정권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태조 왕건에 의한 수도 이전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기 보다 정치적 이유로 급하게 추진된 시책이었다.

이에 반해 궁예에 의해 조성된 태봉국 도성은 사전에 계획되어 수년간 건설이 진행되었다. 태봉국 도성은 외성과 내성을 갖추었다. 이 성은 평지성으로서 궁예에 의해 새롭게 건설되었으며 외성이 12.7km, 내성이 7.7km 정도의 대규모 성이다.⁸⁾ 904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태봉국 도성은 궁예가 905년 철원으로 천도한 후에도 도성 내에서는 관궐과 누대 등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었다.⁹⁾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태봉국 도성은 사치함이 극에 달하였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왕건이 궁예를 축출한 시점의 철원경은 일국의 수도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¹¹⁾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입장에서 수도는 곧 고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여야만 했을 것이다. 왕건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수도 이전이라는 선택을 하였다. 왕건에 의한 급박한 수도 이전 결정은 철원경과 비교되는 개경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새로운 수도 개경은 철원경과 직접적인 비교가 되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후삼국 정립기 후백제의 도성¹²⁾ 및 신라 왕경과도¹³⁾ 비교될 수밖에 없었을 것

6) 『고려사』 권1 세가 태조2.

7)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敎政策 - 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22, 大丘史學會, 1983, 38쪽.

8) 이재, 「철원 지역 성곽의 성격」,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135쪽.

9)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天祐二年乙丑 入新京 修葺觀闕·樓臺 窮奢極侈”.

10) 각주 9와 동.

11) 태봉국 도성내의 坊의 수는 신라왕경의 방의 수를 360개로 볼 때 3,610개의 방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국립중앙박물관, 『철원 태봉국 도성 조사 자료집』, 2009, 17쪽).

12) 후백제 왕성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로 추정되며 평상시 궁성인 평지성에 머물러 있다가 위급할 때 전주 남 고산성·동고산성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곽장근, 「후백제 왕궁과 외곽 방어체계」,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학술

이다. 일국의 수도로서 개경의 위상을 빠른 시기에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태조가 추진한 것이 바로 10寺의 동시 창건이라 할 수 있다.¹⁴⁾ 태조는 919년 궁궐과 행정 관청을 짓는 동시에 개경에 10사를 건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919년 개경 인근 오관산에 四無畏大師 중 한 명인 遍微를 위해 사찰을 창건하였다. 태조가 선각대사 형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오관산에 창건한 사찰은 太安寺로 알려져 있다.¹⁵⁾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태조가 오관산에 형미를 위해 사찰을 짓고 승탑을 세우도록 명한 시기가 919년 3월 이라는 점이다.¹⁶⁾ 이 시기는 태조가 919년 정월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총력을 다해 신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형미는 태봉시기 왕건의 편에 서다 궁예로부터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¹⁷⁾ 태조는 고려 건국직후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방법으로 重幣卑辭 정책을 썼다. 이와 더불어 후삼국 시기 민심을 모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승려들의 지지를 받기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개경에 10사를 창건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편에 서다 죽임을 당한 형미를 융성하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형미의 죽음과 그에 따른 태조의 융성한 대우는 태조에 대한 신뢰감을 불교계에게 가져다주었을 것이다.¹⁸⁾

개경의 10寺와 오관산 태안사 등 11개의 사찰 창건은 919년 궁궐과 관청의 건립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직후 수도를 이전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태봉국 도성을 건설할 경험이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918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낸 시점은 904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태봉국 도성이 완공 된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하기에 태조 왕건은 919년 개경에 신수도를 건설할 때 이들을 어렵지 않게 동원하여 궁궐 조영과 사찰 창건에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태조 왕건은 919년 수도를 개경으로 옮긴 후 빠른 시간 안에 수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민심의 동향을 좌우할 수 있는 불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편에 서다 죽은 형미의 추복 사찰을 우선적으로 창건하였다. 919년 진행된 개경의 10사와 오관산 태안사의 창건은 태조 왕건의 강한 추진력과 심모원려한 상황 판단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심포지엄 자료집』, 국립전주박물관, 2014, 114~117쪽).

- 13) 신라 왕경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의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황보은숙, 「신라의 왕경과 지방도시」, 『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4).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과의 비교 연구는 다음의 글이 있다(金昌賢,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동아시아 도성과 신라왕경의 비교연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9, 경주시, 2008).
- 14) 절 건물은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궁궐 주변과 십자가, 그리고 황성 근처에 위치한 사찰들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연등회·팔관회·제석도량과 같은 국가적인 불교행사가 개최되었다(강호선, 「개경의 절」,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102쪽).
- 15) 김창현,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신서원, 2011, 13쪽.
- 16)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비. 비문 해석은 다음 글을 따랐다(최연식,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碑를 통해 본 弓裔 행적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7, 한국목간학회, 2011, 209~201쪽).
- 17) 申虎澈, 「궁예의 정치적 성격 - 특히 佛敎와의 관계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29, 일지사, 1982, 49쪽.
- 18) 沈在明, 「高麗 太祖와 四無畏大師 - 태조의 結緣意圖를 중심으로」,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21쪽.

2. 지방사찰과 관영건물의 창건

태조에 의한 사찰 창건은 개경의 경우 수도 이전 시기인 919년부터 936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 사찰에 대한 창건도 지속되었다. 최근의 발굴성과와 금석문 자료 등은 왕건이 개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찰 창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하는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지방 사찰 중 후삼국 통일 이전 왕건에 의해 창건되거나 중창된 사찰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안양사, 교산동 건물지, 봉업사, 소백산사 등이 있다.

지방 사찰의 경우 수도 개경의 사찰 창건 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게 창건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후삼국 정립기라는 전시 상황 속에서 사찰보다는 전쟁에 대비한 성곽시설에 먼저 국력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후삼국시대 고려의 축성기록을 살펴보면 918년 9월 청주를 시작으로 935년 12월 북계의 숙천까지 28 차례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중 북방지역에 축성한 경우는 19건으로서 다수를 차지한다.¹⁹⁾ 북방지역의 축성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안정이 후백제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남방지역의 축성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미 삼국시대에 조성된 성곽을 후삼국시대에도 적극 활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 안양사

태조 왕건은 전략적 요충지에 성곽을 축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 거점 지역에는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창하였다. 근래의 발굴성과를 통해 태조 왕건에 의해 조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찰은 안양사를 먼저 들 수 있다. 안양사 명칭의 유래가 된 안양사는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안양사 창건에 대한 유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 安養寺 三聖山에 있다. 절 남쪽에 고려 태조가 세운 7층 벽돌 탑이 있다. ……李崇仁이 지은 <重新記>에, ……門下侍中 鐵原府院君 崔公과 지금 住持大師 惠謙이 중수하여 새롭게 하였다. ……이튿날 겸이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겸이 이 절에 머문 지가 몇 해째입니다. 절 역사를 상고하니, ㉞ 옛적에 태조께서 朝貢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참인데, 여기를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구름이 五彩를 이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습니다. 과연 늙은 중을 구름 밑에서 만났는데, 이름은 能正이었습니다. 더불어 말해 보니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이 건립하게 된 연유입니다. ㉟ 절 남쪽에 있는 탑은 벽돌로 7층을 쌓았고 기와로 덮었습니다.’²⁰⁾

안양사는 왕건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창건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위의 사례A 중 ㉞의 내용은 안양사 창건시기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㉟의 내용은 “옛적에 태조께서 朝貢하지 않

19)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131~132쪽.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금천현 불우조.

는 자를 정벌할 참인데”이다. 사료A에 언급된 ㉗의 내용은 고려 건국 직후 궁예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왕건에게 귀부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던 기간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이외에 당시의 정황 상 “조공하지 않는 자”를 후백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후백제 견훤은 918년 6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낸 두 달 후, 918년 8월 一吉黎 閔郃을 보내와서 즉위를 축하였다.²¹⁾ 견훤이 즉위 직후 축하사절을 보낸 점을 고려한다면 사료A-㉗의 내용은 고려 건국 직후 왕건에게 등을 돌린 호족들이 아직 고려에 귀부하지 않았던 시기로 생각된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직후의 시기에는 熊州와 運州 등 10여 주현이 후백제에 귀부하기도 하였다.²²⁾ 이후 왕건의 적극적인 중폐비사 정책은 왕건에게 귀부하지 않았던 많은 주현이 고려의 편에서게 만들었다. 특히 922년, 下枝縣의 元逢과 溟州 金順식의 귀부는 925년까지 여러 지역의 호족들이 귀부해오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태조 왕건은 925년 高鬱府 能文이 귀부해 왔을 때 고을부가 경주와 가깝다는 이유로 능문을 돌려보내기도 하였다.²³⁾ 왕건이 귀부해온 능문을 다시 돌려보낸 점을 생각해 보면 925년 경까지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태봉지역의 호족들을 상당부분 다시 규합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안양사의 창건은 호족들의 본격적인 귀부가 진행되는 922년경부터 호족들의 귀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925년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태조 왕건이 봉업사를 925년에 중창하고 하남 교산동 건물지의 건립이 924년 이전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안양사의 창건은 922~92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사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한울문화재연구원(2009~2011년) 사이에 실시한 안양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양사는 사료A-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7층 전탑이 세워져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도괴된 전탑 유구가 확인되어 왕건이 전탑을 세웠다는 사료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사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구 유유산업 부지에



〈사진 1〉 안양사 모형(김중업박물관 안양사지관 내 전시)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다. 당간지주의 명문을 통해 현재의 안양사지에는 9세기 전반기에 중초사가 창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중초사는 9세기 후반 통일신라 말기

2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원년.

2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원년.

2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8년.

24)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중초사지당간지주명 참조.

의 혼란기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사찰의 중심부에 위치한 탑이 태조 왕건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안양사는 사역 전체가 왕건에 의해 새롭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발굴 후 파악된 안양사의 가람배치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안양사는 발굴결과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남측과 좌우측에 회랑이 위치한 가람임이 확인되었다.²⁵⁾ 중앙에 위치한 전탑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정도면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기 속에 중초사는 폐허로 변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안양사를 새롭게 창건한 이는 태조 왕건이다. 안양사 건립배경은 그동안 7층 전탑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안양사 7층 전탑의 건립 배경은 비보사탑으로서의 기능과 신라 승려 능정이 주도된 문화적 회귀의 반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²⁶⁾ 안양사의 조성배경은 비보적 기능 역시 존재하였겠지만 그보다 태조 왕건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안양사의 창건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2~925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경상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호족들이 귀부해 오기도 하였지만 개경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북쪽의 호족들은 여전히 왕건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시기였다. 923년에 命旨城(포천) 장군 城達이 왕건에게 귀부하였고 925년이 되어 서야 買曹城(양주) 장군 能玄이 왕건에게 귀부했다. 안양사가 건립되는 시기는 한강 이북 지역의 호족이 막 귀부하기 시작하거나 아직 왕건을 적대시 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왕건은 한강 이남지역의 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옛 중초사 자리에 안양사를 새롭게 창건하였다.

철원과 가까웠던 한강 이북 지역은 친 궁예적 성향이 강했기에 왕건에게 귀부하는 시기가 늦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강이남 지역은 899년 비뇌성 전투에서 궁예가 양길에게 크게 승리한 후 이듬해 왕건이 지휘관이 되어 평정한 지역이다. 900년 왕건이 평정한 지역은 광주·충주·청주·당성·괴양 등이다.²⁷⁾ 아마도 안양사가 위치해 있었던 지역 역시 이 시기에는 왕건에 의해 평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22~925년경 태조 왕건이 안양사를 새롭게 창건한 것은 불안정한 한강 이북의 상황 속에서 한강 이남지역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한강 이남지역의 전략적 중심지는 한강 중류의 경우 광주일대, 현재의 하남시 일원 이 었다. '高達寺元宗大師慧真塔碑'의 기록에 의하면 원종대사는 921년 중국에서 귀국한 후 924년 태조 왕건을 만났다. 왕건은 원종대사에게 광주 천왕사에 머물기를 청하였다.²⁸⁾ 이를 통해 924년경 한강 이남지역 중 중류지역에는 천왕사가 거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강중류 이남지역의 거점이 광주 천왕사 이었다면 한강하류 이남지역의 거점은 안양사라 할 수 있다. 안양사는 태조 왕건에 의해 한강하류 이남 지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이 지역을 위무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창건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25) 한울문화재단연구원, 『安養寺址』, 2013, 331쪽.

26) 金志錫, 「안양사 칠층전탑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7, 韓國文化史學會, 2007, 692~683쪽.

27)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궁예.

28)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고달원원종대사혜진탑비 참조.

(2) 교산동 건물지

광주 일원은 삼국시대부터 전통적인 중요 거점지역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은 태조 왕건의 통치기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천왕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근래에 발굴 조사된 교산동 건물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하남 교산동 건물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설치한 한산주의 치소로 비정되기도 하였다.²⁹⁾ 이후 교산동 건물지는 1990년대 초반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한성백제의 왕궁지로 주장되기도 하였으며 광주객사지로 추정되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교산동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하남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였다.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는 1999~2002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교산동 건물지는 나말여초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수차례의 중창을 거치며 사용된 官營建築物의 유지로 파악되었다.³¹⁾ 교산동 건물지의 초창시기는 명문기와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에서는 총 19점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중 袁宣伯士명의 기와가 3점, 城達伯士명의 기와가 3점 출토되었다.³²⁾

애선백사와 성달백사명 명문기와 중 백사에 대해서는 박사의 이칭으로 장인(기술자)이라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³³⁾ 하지만 이재범의 경우 보림사 석탑지의 명문을 분석하여 백사를 장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상징적 호칭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백사의 의미를 '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 '한 지역을 통솔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문기와에 새겨진 애선백사, 성달백사가 후삼국기 『고려사』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³⁴⁾

『고려사』에 의하면 명지성 장군 성달은 923년 3월에 그의 아우 伊達·端林과 함께 왕건에게 귀부하였다.³⁵⁾ 애선의 경우 924년 7월 조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³⁶⁾ 애선의 경우 하남 지역 출신 호족으로 궁에 때 대상이라는 관계를 획득하였고, 왕건의 쿠데타에 반 왕건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인물로 파악된다. 애선은 고려 초에도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으나, 924년의 조물성 전투에서 전사에 이르고 만다. 한편 성달은 기록과 같이 포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호족 출신으로 궁에 때도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왕건의 반역으로 반 왕건적 성향을 보였던 인물이다. 그러다가 성달은 923년 왕건에게 귀부하였고, 928년 이전에 그 세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⁷⁾

교산동 건물지에서 애선과 성달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점으로 보아 교산동 건물지의 초창 시기는 이들이 함께 활약했던 시기인 923년 3월~924년 7월로 압축할 수 있다. 발굴조사단의 의견은 교산동 건물지 초창

29) 朝鮮地方行政學會, 『京畿地方の名勝史籍』, 1937.

30) 세종연구원, 『하남시 교산동 일대 문화유적』, 1996, 28쪽.

31)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04, 156~157쪽.

32) 畿甸文化財研究院, 위의 책, 182쪽.

33) 남동신,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1992, 395.

34) 이재범, 『高麗 建國期 社會動向 研究』, 景仁文化社, 2010, 261쪽.

3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6년.

3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7년.

37) 이재범, 앞의 책, 2010, 268쪽.

시기를 이 시기로 보고 있다.³⁸⁾ 이재범의 경우 교산동 건물지의 건축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 교산동 건물지의 축조는 태조 왕건 집권기 이후가 아닌 태봉의 궁예 정권기에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³⁹⁾ 하지만 교산동 건물지의 건축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선각대사비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 왕건은 형미를 위해 사찰을 먼저 빠르게 창건한 후 승탑을 신속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교산동 건물지 역시 923~924년 사이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고고학적 발굴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절대 편년을 알 수 있는 명문 자료가 없기에 교산동 건물지가 태봉기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고려 건국 후에 건축되었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죽주 봉업사 중창의 예를 통해 보았을 때 교산동 건물지의 조성 시기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인 923~924년 사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죽주 봉업사는 청주 출신 능달에 의해 925년 대대적인 중창이 실시되었다.⁴⁰⁾ 능달은 고려가 건국되는 918년을 전후한 시기에 친 왕건세력이나 친 궁예세력이 아닌 중립세력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⁴¹⁾ 또는 고려 초 친 왕건과 반 왕건으로 나뉜 청주세력 중 반 왕건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⁴²⁾ 이렇듯 친 왕건 세력이 아니었던 청주출신 능달이 자신의 지역이 아닌 죽주 봉업사를 925년에 중창하였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왕건의 명령에 의한 중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때 반 왕건세력 이었던 성달이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건축을 도와야 되는 상황은 태조 왕건의 명령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923~924년 사이 비교적 규모가 큰 관영건물지를 광주(하남)에 만든 이유는 9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 후백제 공세를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고려는 925년 10월에 이르러 고려의 건국 후 한 번도 없었던 후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행하였다.⁴³⁾ 당시 후백제와의 전선은 충청도와 경상북도 일원에 형성되어 있었다. 최전방 전선과 수도 개경의 통교는 해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광주로 연결된 후 한강을 건너 개경으로 연결되었다. 즉, 광주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한강이남 고려군의 명령계통이 최종적으로 집결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하남 교산동 건물지는 본격적인 대



〈사진 2〉 ‘哀宣伯士’명 기와, 하남시 역사박물관 소장

38) 畿甸文化財研究院, 앞의 책, 2004, 156~157쪽.

39) 이재범, 앞의 책, 2010, 270쪽.

40) 京畿道博物館, 2002, 『奉業寺』, 458쪽.

41)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한국사연구회, 1988, 169쪽.

42)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한국사연구회, 1985, 45쪽.

43) 류영철, 앞의 책, 2004, 78쪽.

후백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영건물지로 추정된다. 이 건물지는 태조 왕건의 명으로 성달과 예선이 주도하여 923~924년경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봉업사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봉업사지는 경기도 박물관에 의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⁴⁴⁾ 봉업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華次寺’명 기와, ‘大中八年’(854)명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 화차사라는 절이 봉업사의 전신이었음이 밝혀졌다. 봉업사지 발굴조사에서는 다양한 명문기과가 출토되었는데 이중 ‘□年乙酉八月日竹……/……里凡草伯土能蓬毛’ 명문 기과를 통해 봉업사가 925년 능달에 의해 중창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⁴⁵⁾

봉업사지의 사역은 현재 봉업사지 오층석탑이 세워져 있는 곳과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죽산리 삼층석탑이 위치한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죽산리 삼층석탑 주변의 사역은 발굴조사 결과 ‘太和6年’(832)명 기과가 삼층석탑 하부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의 사지에서는 ‘大中8年’(854)명 기과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능달’명 기과, ‘西州官’명 기과가 출토되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에서는 ‘太和6年’(832)명 기과가 출토되지 않은 점을 보면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가 현재의 오층석탑 주변으로 사세를 확장한 시기는 9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봉업사가 위치한 죽주는 889년 신라 중앙정부의 조세독촉과 이에 대항한 농민의 貢賦不納사건 직후부터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9세기말 신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스스로 성주·장군이라 칭하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호족이 등장하였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세력 중 가장 먼저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죽주적괴 기훤이다.⁴⁶⁾ 죽주는 신라말 죽주적괴 기훤이 활약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궁예와 양길이가 중부지역의 패권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벌인 비뇌성 전투의 전장지이기도 하였다. 궁예와 양길이의 운명을 기른 비뇌성은 봉업사 뒤편



〈사진 3〉 봉업사지4차발굴 출토
‘太和六年壬子’명 기과 탐본

44) 발굴 조사된 내용은 다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경기도 박물관, 『奉業寺』, 2002;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45) 발굴보고서에서는 명문 내용을 “925년 8월에 능달이 죽주에서 모두의 힘을 합쳐 불사를 하였다”로 풀이하고 있다. 명문의 해석이 정확하다 할 수는 없지만 925년 8월 능달의 주도로 봉업사가 중창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6) 최종석은 나말여초기 성주·장군이라 칭한 인한 인물들을 분석 바 있다(최종석,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 5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82~83쪽). 賊이라는 용어로 지칭된 인물 중 문헌 기록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竹州賊魁 箕萱이다.

의 죽주산성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봉업사와 그 인근에서 벌어진 도적의 발흥과 대규모 전투 등으로 인해 봉업사는 9세기 말경 폐허가 되었다. 폐허가 된 봉업사를 925년 청주출신 능달이 대규모 중창을 시행하였다. 925년 능달이 대규모 중창을 실시한 지역은 현재 봉업사지 오층석탑이 세워져 있는 사역 일대이다. 1·2차 발굴조사를 통해 봉업사 일대가 신라말 폐허로 변한 후 925년 능달에 의해 대규모로 중창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목탑-금당-강당의 가람배치를 이루었던 봉업사는 폐허가 된 이후 능달에 의해 목탑지는 금당으로, 금당지는 강당으로 새롭게 중창 되었다.⁴⁸⁾

후삼국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죽주의 중심부가 봉업사였다. 당시의 전선이 충청도와 경상북도 일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죽주는 최전방 전선의 배후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능달명 기와가 925년 8월경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시기에 기와가 올려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봉업사는 925년 9월경에는 중창이 완료되었을 것이다. 918년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925년경 그에게 등을 돌렸던 호족들을 대부분 규합하였다.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귀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9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백제를 선제공격하였다.⁴⁹⁾ 태조 왕건이 925년 10월부터 백제를 선제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925년경까지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925년 중창된 봉업사는 태조 왕건의 후백제 공격준비가 925년 9월경에는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치밀한 준비 후 태조 왕건은 9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즉, 봉업사는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4) 소백산사

소백산사는 현재 경북 풍기의 비로사이다. 풍기 비로사에는 비로사 眞空大師 普法塔碑가 있다. 이 탑비는 진공대사가 937년 입적하자 태조가 최언위에게 명을 내려 비문을 찬하게 한 후 939년 8월 15일에 세운 비이다. 진공대사 보법탑비는 크게 네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고 상단과 하단의 비편이 유실되어 있었다. 유실된 비편 중 하단의 비편은 2008년 실시된 동양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찾을 수 있었다.⁵⁰⁾ 이를 통해 진공(855~937)의 생애와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⁵¹⁾ 새롭게 찾아진 비편 중에는 태조 왕건이 비로사를 방문하여 진공대사를 만나는 구체적인 연도(931년 7월)가 있어 주목된다.

47) 이도학, 「궁예의 복원점 점령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 194~202쪽.

48)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48쪽.

49) 태조 왕건은 庚黔瀾로 하여금 燕山鎮(충북 문의)을 선제공격하게 하였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

50) 새로 발굴된 진공대사 비편을 소개한 글은 다음과 같다(권순철 외, 「榮州 毘盧寺 樓閣新築敷地 발굴조사의 성과」, 『新羅史學報』 13, 新羅史學會, 2008; 노대환, 毘盧寺 眞空大師普法塔碑片 발굴과 그 내용」, 『목간과 문자』 2, 한국목간학회, 2008).

51) 탑비가 발견된 후 진행된 진공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이 비판의 발견으로 비로사 중창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데 진정환은 931년을 태조가 비로사를 중창한 시기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존에 9세기 후반 경으로⁵²⁾ 추정되어 왔던 비로사 불상들의 조성시기를 석조아미타불좌상은 8~9세기 초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시기는 사찰의 중창시기인 931년으로 추정하였다.⁵³⁾ 이러한 주장은 불상 상호간 양감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조성시기를 새롭게 고찰해 볼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로사의 중창 시기는 931년 보다 조금 더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비문의 내용 중 태조가 “소백산사를 중수하여 머물기를 청했다”거나, 진공이 “이 산에 머문 지 7·8년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보면 태조가 비로사를 방문한 931년 이전에 비로사가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로사가 중창된 시기는 태조가 929년 7월 기주(풍기)를 방문한 시기일⁵⁴⁾ 가능성이 높다. 진공대사가 소백산사로 이석한 시기도 이 시기로 추정된다.⁵⁵⁾

태조는 왜 이시기에 소백산사를 중창하고 진공대사를 머물게 하였을까? 정동락은 재암성 장군 선필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최선필의 귀부가 930년 1월인 점을 고려하여 왕건이 진공대사를 통해 최선필의 귀부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⁶⁾ 고려는 927년 공산전투에서 참패이후 경상도 일대에서 수세에 놓였다. 이를 만회하는 계기가 된 것이 고창전투이다. 고창전투는 929년 12월에 후백제군에 의해 포위된 고창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고려의 원병 파견에서 비롯되어 이듬해 정월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졌다.⁵⁷⁾ 최선필은 고창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930년 1월에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진공대사가 최선필의 귀부를 유도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태조 왕건이 비로사를 929년 7월경 중창한 이유는 죽령로와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경상북도 일대에서 후백제와 세력을 다투었던 고려는 927년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게 대패를 당한 후 고창전투 이전까지 수세에 놓였다. 이 결과 경상도로 통하는 추풍령로, 조령로 및 계림령로는 후백제에 의해 차단되었다. 고려군은 동쪽으로 훨씬 우회하는 죽령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⁵⁸⁾ 소백산 남쪽에 위치하



〈사진 4〉 비로사 출토 진공대사 보법탑비편¹⁾

52) 文明大, 「비로사 石造毘盧阿彌陀佛의 考察」, 『考古美術』 136·137, 1976, 126~133쪽.

53) 陳政煥,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70~72쪽.

54)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12.

55) 정동락, 위의 글, 2009, 23쪽.

56) 각주 54와 同.

57) 류영철, 앞의 책, 2004, 155~156쪽.

58) 위의 책, 2004, 154~155쪽.

며 죽령로와 인접한 소백산사는 죽령로를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공대사는 고을부 장군 능문과 재암성 장군 최선필 등 신라지역의 세력가들로부터 환대와 지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왕건은 소백산사를 중창하고 신라지역에 명망이 높았던 진공대사를 초빙하였다. 왕건이 진공대사를 초빙한 이유는 고창전투 이후 수세에 놓인 경상도지역에서의 패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새로운 통일왕조의 건국과 통치 - 석조미술을 통해 본 시각

1. 개태사의 창건

논산 개태사는 후백제 정벌이 완료된 후 태조 왕건이 특별히 담당 부서(有司)에 명령하여 창건한 사찰이다.⁵⁹⁾ 936년 착공하여⁶⁰⁾ 940년 완공된⁶¹⁾ 개태사는 후백제 정복과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로 알려져 왔다. 개태사 석조삼존불상이 있는 건물지는 1986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창건 기단위에 정면 5칸(21.5m), 측면 3칸(10.3m)의 맞배 지붕이 시설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⁶²⁾



〈사진 5〉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개태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미술사학계에서의 논의와 역사학계에서의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미술사학계는 개태사 석조삼존불상의 존명과 의미에 대해 주로 고찰하였다.⁶³⁾ 역사학계에서는 고려군이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한 후 후백제군을 쫓아 둔영한 마성의 위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⁶⁴⁾

5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충청도 연산현조.

60) 『고려사』 권2 태조19년.

61) 『고려사』 권2 태조23년.

62) 尹武炳, 「開泰寺 三尊石佛殿 創建基壇 調査報告」, 『百濟研究』 1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6, 315쪽; 論山郡·開泰寺址 發掘調査團, 『論山 開泰寺址 發掘調査略報告』, 1990, 307~337쪽.

63) 각주 3 참조.

64) 마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산자 김정호의 전북 완주군 운주면 용계산성설부터 개태사 석축까지 6가지 정도의 학설이 주장

2002년 발견된 개태사 주변의 토성은 마성의 위치를 재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개태사 주변의 토성은 공주대학교 박물관이 2002년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이다. 이 토성은 토루의 길이만 2.7km이며 해자 역할을 하는 서쪽의 연산천까지 포함하면 전체둘레가 약 4km에 이르는 대규모 성이다.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토성이 고려말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⁶⁵⁾

토성을 발견한 공주대학교 박물관은 이 성을 고려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최근의 연구성과는 개태사 주변의 토성이 마성임을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개태사 석조삼존불상이 후백제 신검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바로 그 장소에 건립된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⁶⁾ 일반적인 통일신라 불상은 조화와 비례미가 있으며 자비가 넘치는 이미지로 조각된다. 하지만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괴체적인 몸체와 커다란 손, 발을 갖고 있어 자비심과 인자함보다 괴력과 힘이 넘치는 인상을 참배자들에게 준다.

이러한 모습으로 석불이 조각된 이유는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후백제를 비롯한 후삼국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하고자 하는 태조 왕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조 왕건은 후백제 신검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장소에 의도적으로 괴력과 힘이 넘치는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통일신라의 전통적인 석불양식과 매우 다른 독창적인 석조삼존불상의 모습으로 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탑비의 건립

탑비는 승탑 건립 후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행적을 기록하여 세운 일종의 묘비이다.⁶⁷⁾ 승탑과 탑비의 건립은 모든 승려들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國師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추증된 승려들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건립될 수 있었던 조형물로 추정된다.⁶⁸⁾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937년부터 탑비를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다. <표 1>은 태조 왕건의 명에 의해 탑비가 세워졌거나 비문이 작성된 사례이다. 태조 왕건이 세운 탑비 중 가장 먼저 건립되는 것은 순지의 탑비이다.

순지비는 효공왕 때 세워졌으며 왕건의 조모 元昌王后와 龍建, 威武大王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순지비가 세워진 이유는 순지의 상족제자인 영광선사가 서운사와 왕건선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려 왕실의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건은 순지비의 내용 중 선대의 시호를 고치고, 최언위로 하여금 후기를 쓰게 하여 937년 중수비를 건립하였다.⁶⁹⁾

되었다. 마성의 위치에 대한 제 학설의 정리는 다음 논문 참조(정성권,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조성배경 再考-太祖王建 軍屯營址馬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白山學報』 91, 白山學會, 2012, 206~211쪽).

65) 公州大學校博物館·論山市, 『開泰寺址』, 2002, 128쪽.

66) 정성권, 앞의 글, 2012, 211~233쪽.

67) 박상준, 『新羅下代 塔碑 研究』, 『講座 美術史』 29,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7, 12쪽.

68)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63쪽.

69) 정동락,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新羅史學報』 14, 新羅史學會, 2008, 155쪽.

순지의 경우 입적연도가 896년이기에 순지와 왕건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 이밖에 왕건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승려 중 왕건대에 탐비가 건립되거나 비문이 찬해진 예로는 절중과 개청이 있다. 개청은 범일선사의 제자이며 명주 호족의 지원을 받았던 승려였다. 개청은 당대의 다른 승려들과 비교하였을 때 태조와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태조를 대면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비가 세워졌는데 이는 명주지역 호족의 지원과 상족제자들이 여러 차례 표를 올려 개청의 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절중은 900년 강화도 은강선원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사리는 은강선원에서 동림사로 옮겨져 그곳에 승탑이 만들어졌다. 동림사의 승탑은 944년 흥녕사로 이전되어 새롭게 승탑과 탐비가 만들어졌다.⁷⁰⁾ 절중의 승탑이 영월 흥녕사에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충주에 현휘의 승탑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휘는 중국에서 돌아온 후 왕건의 권유로 충주 정토사에서 주석하게 되었다. 현휘의 명성은 중앙의 관료들의 경우도 정토사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수치로 여길 정도로 대단히 높았다.⁷¹⁾ 현휘는 941년 입적하였고 943년 탐비가 세워졌다. 현휘의 탐비는 세워진지 1년 후 음기가 새겨졌다. 944년 6월 1일과 17일 거의 동시에 진행된 현휘비와 절중비의 음기 기재 세력을 분석해 보면 충주유씨 세력이 주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44년 6월 충주 유씨는 수많은 재경 정계 인사들과 교류한 충주 정토사의 현휘와 평생 정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피한 흥녕사의 절중을 모두 추모하는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王堯君(정종)의 왕위 계승 자격과 의지를 드러내는 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⁷²⁾

후삼국 통일 후 가장 먼저 세운 탐비 중 하나는 해주 광조사에 있는 이엄의 탐비이다. 이엄은 중국 유학 후 왕건의 부름을 받고 왕건에게 나아갔다. 왕건은 해주 광조사를 개창한 후 이엄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 왕건이 이엄을 광조사에 머무르게 한 이유는 패서 지역의 호족세력이 장단의 순지계열의 선승 세력과 연결된 고리를 끊게 하고, 광조사를 중심으로 패서 지역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⁷³⁾

탐비가 세워지는 승려들의 공통점은 왕건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인물들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기여 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중 주목되는 승려는 흥법사 충담이다. 태조대 건립된 많은 탐비 중 오직 충담비만이 태조가 직접 찬술했다. 태조가 충담비를 직접 찬술한 이유는 봉림사의 법맥을 충담이 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태조는 자신에게 스스로 귀부해 온 충담이 봉림사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견해를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비문에 적었다. 봉림사의 법맥은 현욱-심희-충담으로 이어지는데 심희의 경우 신라 경명왕이 비문을 직접 써주었다. 이 사실을 태조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충담이 죽자 경명왕의 전례를 따라 그의 비문을 직접 써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신라와 불교계를 의식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⁷⁴⁾

70) 엄기표, 앞의 책, 2003, 49쪽.

71)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정토사 범경대사 자등탐비 참조.

72) 李仁在,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 『韓國古代史研究』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318쪽.

73)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225쪽.

74) 김용선, 「원주 흥법사·충담과 고려 태조」, 『원주 흥법사지의 학술적 검토 자료집』, 강원문화재연구소, 2014, 21쪽.

〈표 1〉 태조 왕건 재위시기 비문 작성 또는 건립된 탑비⁷⁵⁾

번호	탑 비 명	건비 장소	승려명	입적 연도	건립년 (추정)	건비년	찬자/작성시기 (추정)
1	瑞雲寺 了悟和尚 眞原塔碑 ⁷⁶⁾	개풍	순지	896	896	937	박인범/ 897~900
2	廣照寺 眞澈大師 寶月乘空塔碑	해주	이엄	936.8	936	937.10	최언위/ 937
3	菩提寺 大鏡大師 玄機塔碑	양평	여엄	930.2	930	939.4	최언위/ 938
4	毘盧庵 眞空大師 普法塔碑	영주	□운	937.9	937	939.8	최언위/ 938
5	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眞塔碑	강릉	개칭	930.9	930	940.7	최언위/ 940
6	興法寺 眞空大師塔碑	원주	충담	940.7	940	941	태조왕건/ 941
7	鏡淸禪院 慈寂禪師 凌雲塔碑	예천	홍준	939.10	939	941.10	최언위/ 941
8	淨土寺 法鏡大師 慈燈塔碑	충주	현휘	941.11	942	943.6	최언위/ 943
9	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	개성	경유	921.3	922	944.5	최언위/ 943
10	興寧寺 澄曉大師 寶印塔碑	영월	절중	900	944	944.6	최언위/ 924
11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塔碑	강진	형미	917	919	946.5	최언위/ 940

태조 왕건대 찬술되거나 건립된 탑비 중 형미의 탑비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비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태조 왕건은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가장 먼저 궁궐을 건설함과 동시에 자신의 편에 서다 죽임을 당한 형미를 위해 사찰을 건립하고 승탑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선각대사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B. 다음해(919, 태조 2) 3월에 이르러 드디어 (대사의) 제자 한준과 화백 등을 불러서 “開州의 오관 산은 참된 사람의 胎를 묻을 곳이다. 이 산은 산세가 아름답고 지맥이 평안하니, 무덤을 두기에 마땅한 곳이다. 반드시 존귀한 분의 명복을 빌 수 있는 곳이다. 스님들은 有司와 함께 山寺를 빨리 짓고 이어서 (대사의 유골을 안치하는) 塔(石墳)를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

75) 〈표 1〉에 작성된 연도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해안, 1996; 李賢淑, 「나말려초 崔彦擥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花史學研究』 22, 梨花史學研究所, 1995, 15쪽;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324쪽).

76) 了悟 順之의 입적연도와 탑비의 찬자 등은 정동락의 연구를 참조하였다(정동락, 앞의 글, 2008, 125~126쪽).

다. 그 달에 먼저 사찰(仁廟)을 짓고 이어서 높은 탑을 이루었다.⁷⁷⁾

자료B의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오관산에 사찰을 건립함과 동시에 승탑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형미의 탑비는 무위사에 건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비는 승탑과 동일한 권역에 배치되거나 탑비가 경내에 위치하고 승탑은 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조성된다.⁷⁸⁾ 탑비와 승탑이 별개의 사찰에 조성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예로는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과 탑비를 예로 들 수 있다. 행적의 승탑은 석남사에 건립되었고 탑비는 태자사에 조성되었다. 탑비가 태자사에 조성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동일한 사찰에 탑비를 세울 수 없었으며 후대에 행적의 제자들에게 의해 행적의 탑비가 태자사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는 왜 개경 오관산에 건립되지 않고 강진에 설립되었을까. 형미의 승탑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직후 바로 조성되었다. 탑비문의 경우 최언위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태조 왕건대에는 완성되어 있었다. 시호가 내려진 후 비가 건립되기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통 1~6년 정도 걸린다.⁷⁹⁾ 정종이 즉위한 시기가 945년 9월경이며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가 완성된 시기가 946년 5월경이다. 약 8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탑비의 건립이 이 기간 안에 건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선각대사의 비는 완공되기 8개월 이전 정종때가 아닌 혜종때 강진 무위사에 건립되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혜종이 선각대사 형미의 비를 그의 승탑이 있는 개경 인근의 오관산에 세우지 않고 형미가 한때 주석하였던 강진 무위사에 세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현휘와 절중비의 설립 배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현휘와 절중의 탑비 건립과 음기의 추각은 충주 유씨를 중심으로 정종을 추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모임이었다.

이와 같이 탑비의 건립은 탑비가 건립되는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모을 수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큰 행사였다. 혜종이 강진 무위사에 선각대사 형미의 비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당시 세력이 미약했던 자신의 외척세력, 나주오씨 세력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 건립은 나주오씨 세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호족세력들을 결집시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육



〈사진 6〉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 탑비

77)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비, 비문의 해석은 다음의 글을 따랐다(최연식, 앞의 글, 2011, 209~201쪽).

78) 엄기표, 앞의 책, 2003, 519쪽.

79) 박상준, 앞의 글, 2007, 17쪽.

성하고자 했던 혜종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 왕건은 최연위에게 명을 내려 고려의 통일에 도움을 주었던 승려들의 탑비 비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탑비는 승려에게 시호와 탑호가 왕에 의해 하사되어야만 작성될 수 있었다. 고려 건국직후 탑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된 이유는 시호와 탑호를 내리는 왕이 신라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왕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수단으로 하나로 이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태조 말년에 작성된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문은 태조 왕건의 의도와 상관없이 혜종의 정치적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 글은 기존의 개별적인 유적과 유물의 연구 성과를 태조 왕건집권기라는 시간 범위 속에서 종합적이며 수평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태조 왕건 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안양사지, 교산동 건물지, 봉업사지, 소백산사 등을 고찰하였다. 태조 왕건은 918~925년 사이에 호족들을 평정하고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며 후백제와의 대결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안양사지와 교산동 건물지라 할 수 있다.

922~925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안양사는 한강이남 지역의 호족들을 복속시키고자 하는 태조 왕건의 의도가 반영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923~924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산동 건물지는 후백제와의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지는 기존에 청주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본문에서는 925년 9월경 봉업사가 중창 완료된 이유를 9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후백제전의 배후 거점지역 조성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소백산사의 중창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931년이 아닌 929년경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태조 왕건이 소백산사를 중창한 이유는 927년 공산전투 이후 경상도 지역으로 통하는 유일한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해하였다.

936년 후백제 신검으로부터 항복으로 받은 태조 왕건은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통일왕조의 시대를 열었다. 개태사 석조삼존불상은 새로운 통일왕조가 시작된 것을 후백제 지역에 보여주는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태조 왕건집권기 조영된 유적과 유물 중 조성 기록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탑비를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태조 왕건의 재위시기 조영되었거나 비문이 작성되었던 11기의 탑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예외도 있으나 대부분의 탑비는 후삼국기 태조 왕건을 도왔던 승려들의 탑비임을 알 수 있었다. 탑비는 왕으로부터 건립허가를 받아야 세울 수 있는 조형물이다. 태조 왕건은 통일 직후 본격적으로 탑비를 조영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군주가 바로 자신임을 고려 곳곳에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알릴 수 있었다.

태조 왕건 시기 세워졌거나 비문이 쓰여진 탑비 중 일부는 태조 왕건의 의도와 상관없이 후대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현휘와 절종의 비이다. 이밖에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 역시 정치적 의도로 개성 부근 오관산에 세워지지 않고 강진 무위사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무위사에 형미 탑비를 세우도록 지시한 사람은 해종으로 추정되며 그 이유는 자신의 외척세력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호족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도 박물관, 『奉業寺』, 2002.

_____,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권순철 외, 「榮州 毘盧寺 樓閣新築敷地 발굴조사의 성과」, 『新羅史學報』 13, 2008.

畿甸文化財研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04.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1985.

김창현,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신서원, 2011.

남동신,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京仁文化社, 2004.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毘盧舍那丈六三尊佛像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29, 1982.

박상준, 「新羅下代 塔碑 研究」, 『講座 美術史』 29, 2007.

蘇在龜, 「新羅下代 高麗時代 僧塔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員 박사학위논문, 2001.

申虎澈, 「궁예의 정치적 성격: 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29, 1982.

沈在明, 「高麗 太祖와 四無畏大師: 태조의 結緣意圖를 中心으로」,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199.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이 재, 「철원 지역 성곽의 성격」,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이재범, 『高麗 建國期 社會動向 研究』, 景仁文化社, 2010.

陳政煥, 「高麗 前期 佛敎石造美術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정동락,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新羅史學報』 14, 2008.

_____,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정성권,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조성배경 再考: 太祖 王建軍 屯營址 馬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 『白山學報』

91, 2012.

_____, 「高麗 建國期 石造美術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論山 開泰寺 石造供養像 研究」, 『佛教美術』 23, 2012.

_____,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韓國人物史研究』 19, 한국인물사 연구회, 2013.

정성권 외, 『고려의 국왕』, 景仁文化社, 2015.

최종석,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 50, 2004.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崔聖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 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美術史論壇』 16·17호, 2003.

최연식,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碑를 통해 본 弓裔 행적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7, 2011.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22, 1983.

_____, 『安養寺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8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Koryo Taejo Wanggeon by Art History and Archeology

Jeong, Seongkwon*

Taejo(太祖) Wanggeon(王建) is a one of the famous king in Koryo(高麗) dynasty. Many scholars have been studied about Taejo Wanggeon. Most studies about him researched based on Koryosa(高麗史) which is a historical book written in early Choson(朝鮮) dynasty. Although Koryosa is a important book to study about Koryo dynasty, Koryosa has paltry record about early Koryo dynasty. Because of that studying about early Koryo is very difficul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To study Taejo Wanggeon period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was progressed in this paper. Taejo Wanggeon seized power in a military coup in 918. The former part of Taejo wanggeon period was a state of war with Hubaekje(後百濟). In this period, he built many buildings and temples. For example, Annyangsa, Gyosandong geonmulji, Bongeopsa, Sobaeksansa. Those site excavated recently. This paper show that most of these building constructions related with the strategy for aggression against Hubaekje.

In this paper, the latter part of Taejo Wanggeon period was explained by Gaetaesa statues of the Buddha. Gaetaesa was a temple which was built by the order of Taejo Wanggeon. Gaetaesa stone Buddha triad image was built in the historical and symbolic site that Wnaggeon finally achived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t the end of this paper studied 11th Tapbi(塔碑) which is kind of memorial stone of Buddhist monk. When famous Buddhist monk died, usually his disciples wanted to build their teacher's Tapbi. To make Tapbi, they need king's approval. After 937, Most of Tapbi was made by Taejo Wanggeon. It means that Taejo Wanggeon is a new king of the advent of th new Unifed Dynasty of Koryo.

[Key Words] Taejo Wanggeon(太祖 王建), Annyangsa(安養寺), Bongupsa(奉業寺), Sobaeksansa(小白山寺), Gaetaesa statues of the Buddha, Tapbi(塔碑)

* Lecturer, Dongguk University

